

청년기업가와 예비역 장교의 콜라보

“명예롭고 존중받는 군사문화 창출 기업으로 거듭날 것”

군복 제작업체 ‘하이퍼 오프스’ 탐방

‘굿디자인’ 산업부장관상 수상

“주위의 만류에도 군납품 포기안해 입소문으로 ‘캠벳제품’ 널리 알려”

패션을 전공한 젊은 기업가 윤현수(주)토브더가먼트메이커 대표(36)와 예비역 소령 출신의 (주)연병장 최재운 대표(43)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더 좋은 전투복을 만들어 주기위해 하이퍼 오프스(Hyper-ops)라는 브랜드로 의기투합했다.

청년 기업가와 예비역 영관 장교의 같이 추구하는 경영철학은 ‘군인의 명예와 존중’, ‘국민에 신뢰받는 군사문화 창출’이다. 패션의 거린 서울 양구정 거리에 위치한 하이퍼 오프스 사무실을 2일 불쑥 찾아갔다. 주문 문의로 윤 대표와 최 대표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바빠 보였다.



최재운(주)연병장 대표(왼쪽)과 윤현수(주)토브더가먼트메이커 대표가 하이퍼 오프스 제품들을 배경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윤 대표는 한복집을 하였던 외할머니와 패션디자이너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패션을 전공해 오랫동안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어 왔다.

잠시 업무를 내려 놓은 그는 기자에게 “인도 등 해외 군납업무를 하다가 우리 군

인들이 우리나라 보다 가난한 나라보다 좋지않은 군복을 입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을 때 속이 상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주위에서는 이윤도 내기 힘든 군납사업 왜하러 하나며 말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그렇게 고민 중에 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최 대표를 만나, 설득해

지난 8월 하이퍼 오프스를 공개 론칭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나는) 1999년 육군학사장교 33기로 임관해, 특전사 등에서 복무하다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많은 사업을 펼쳤지만 실패라는 쓴 잔을 맛보아 했다”면서 “그러던 중 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렸던 캠벳셔츠를 통해, 윤 대표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론칭이후 약 5개월 동안 현역 군인, 경찰 특공대, 소방관들의 입을 통해 하이퍼 오프스의 캠벳셔츠와 캠벳팬츠는 널리 알려졌다. 지난 달 2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굿디자인(GD)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받았다.

무거운 방탄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는 군인들의 열피로를 덜어주는 캠벳셔츠, 눈·비와 강한 바람에서 군인을 보호해주는 하드셀(방수자켓)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 오프스의 제품들이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지난 5개월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지만 최 대표와 생산·기획·디자이너의 입장이 잘 맞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을 해 온 것 같다”면서 “미국의 아웃도어 쇼에서 우리 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해외 주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의 군인·경찰·소방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 노력한다”면서 “육군의 첨단부대에 하이퍼 오프스가 자체개발한 위장패턴과 전술피복이 납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군인들에게 사랑받는 군복을 통해, 군인들이 명예롭고 존중받는 군사문화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한 헌신’이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etroseoul.co.kr

〈해양수산업 부문별 5년간 누적 고용효과〉

(단위: 시간, 명)

순번	업종	평균 감축시간	고용 효과	순번	업종	평균 감축시간	고용 효과
1	해운업	0.4759	514	6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558	20
2	항만업	0.9929	694	7	해양관광업	0.8724	52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1.4715	4,965	8	수산물생산업	0.2104	246
4	해양기기·장비 제조업	1.8653	1,210	9	수산물가공업	3.5995	4,085
5	해양건설업	0.8286	99	10	수산물유통업	0.501	757
총계				평균감축시간			고용효과
10개 해양수산업 총계						1.07	12,642명
제도 적용 대상 산업총계(수산업 및 특례업인 해운업 제외)						1.09	11,882명

/자료=저자 작성

해양수산업체 94%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없다”

KMI, 해양수산업분야 근로 현황

인건비·업무능력자 구인 등 부담 ‘신규 채용계획 있다’ 15% 불과 맞춤 제도, 채용 등 지원 마련을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업분야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곳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KMI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분야 근로 현황 및 제도 시행의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여부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였으며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3.9%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은 15.2%로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희망하는 정

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중산자 임금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인력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MI 관계자는 “법정부 차원의 해양수산업분야 고용정책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업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부처 차원의 향후 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업 고용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5일 시행

해수부, 분석방법·절차 등 표준화

해양수산업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해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부 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퇴적물 중 리튬(Li)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참굴, 성게, 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유죄판결 아닌 ‘적발’만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

대법원, 3진아웃제 논란 일단락

법원 유죄 판결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이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취지는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교통질서 확립이므로,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그에 대한 혐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대법원.

/이범중 기자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 적발 횟수로 볼 것인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할 지 명확치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아웃제 논란은 일단락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482개 국가기술자격검정 규정 강화

산업인력공단, 5개 등급 482개 종목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을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2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

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